

불자 세상보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흥미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색다른 전쟁을 치루고 있다. 바로 '술'과의 전쟁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야만적인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와 피해를 특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강릉경찰서는 경포해수욕장 등 동해안 해수욕장으로의 주류 반입을 단속하고 있기도 하다. 사법부에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서 취중상태를 양형감경사유로 고려했던 것에서 반대로 이를 가중처벌요인으로 삼아 주취로 인한 범죄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처럼 술과의 전

'주폭'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쟁을 벌인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0년대 언론이 앞장서 음주문화를 개선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며 이 당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당시 경찰은 유원지에서 음주행위를 풍기문란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기도 했다. 90년대 들어서는 경찰과 관계 당국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며 그 일환으로 심야·퇴폐 영업행위를 단속했다. 이 당시 술 소비량을 무려 21%, 유출입 총사자의 수도 20만 명 이상까지 줄였다. 당시 상황은 1992년 10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신입사원 폭주 강요는 옛말', '밤늦게 2·3차 거의 사라져'와 같은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음주문화 개선은 2-3년 이 지나도 계속된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사회에서 음주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사회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지나질 정도로 관대하기까지 하다. 술에 취해 저지른 중대범죄행위도 술로 인한 실수로 치부되기도 한다. 형법

에서는 주취를 일종의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조직을 등에 업고 일반시민에 해를 끼치는 폭력배들의 무력행사를 '주폭'이라고 한다면, 술의 힘을 빌려 일반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주폭'이다. 음주 문화 병폐 인식 부족 폭력 범죄 40%가 음주 관련 사회 질서위해 술 규제 필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폭력은 엄연히 중대범죄이며 술로 인한 '주폭'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폭력범죄의 약 4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경찰의 통계만 보아도 지나친 음주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단속은 필요하다. 대부분의 폭력범죄가 일종의 격정과 충동의 범죄이며 음주가 이런 감정을 유발, 촉진시키는 방어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주폭은 습관적이며 그래서 누범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 또한 주취자와 주취에 의한 각종 문제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집행과 처벌이 음주로 인한 폭력 억제와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규제와 처벌만으로 우리 사회의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뿌리깊은 문화를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술에 취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바꿀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주류를 팔고, 사고, 마시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국 어디서나 너무나 쉽게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다.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슈퍼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주류판매를 밤 11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일요일이면 모든 곳에서 술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 주취자에 낭비되는 경찰력의 손실을 아껴 그 힘을 시민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더하기 위해서라도 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사부대중 칼럼



남준섭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대웅선수촌 전법단 지도법사

지구인들의 가장 큰 평화와 화합의 한 마당인 하계올림픽이 7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던 대회가 1948년 런던 올림픽이라고 하나까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거기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이번 올림픽에 <조계종 응원단>으로 참가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예전에 보았던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어떤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꾼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곤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표어 중에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글로 생각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정신적 자세와 도전의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 지금 바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최선을 다하는 도전정신과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며 올림픽을 준비해 왔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그 꿈의 무대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그동안 노력하고 인내했던 스스로의 능력을 경기장에서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올림픽은 여러 다양한 종목의 경기이다.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루며 자웅을 가리는 국력의 경쟁 마당인 것도 사실이다.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다. 그럼에도 부정과 반칙이 아닌 선의의 경쟁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는 건드릴 수 없는 전제가 있다. 정정당당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모습은, 올림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준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불자 선수들의 용기 있는 선전은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리라 믿는다. 불자선수들 뜨거운 감동 주길 올림픽, 인류 상생 위한 전환점 4년간의 노력 수행자 모습 닮아 한편에서는 우리 선수단의 목표가 10-10, 금메달 10개와 종합 10위 달성이라고 한다. 자칫 성적에 대한 목표와 국민들의 기대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림픽의 좋은 결과는 당연히 국민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겠지만, 성적을 떠나 최선을 다한 것으로도 충분히 국민들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이 긴장감과 부담감을

떨치고 경기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4년을 주기로 지구촌 곳곳을 순회하며 열리는 올림픽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경쟁으로 상처받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해 왔다.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인간과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전쟁과 기아,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올림픽은 인류가 평화와 상생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나 목표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난 4년간 힘 없이 정진해온 우리 선수들은 수행자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준비가 끝났다면, 어찌 결과를 걱정하겠는가? 선수들 모두, 용감하게 도전했으면 한다. 모조리 이번 런던 올림픽이 갈등과 대립의 세상을 화합과 평화의 모습으로 바꾸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불자 선수들이 앞장서면 더욱 좋겠고.

올림픽 대표 선수단 선전 기원

社說 사찰 평생교육원 준비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의 시대다. 단순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자가 아니라 자기 계발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어서다. 이렇게 수요가 늘다보니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7월 12일에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평생교육 시장이 종교계에 개방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개신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 강좌들이 운영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도 상당수 축적된 상황이다. 반면 불교계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시설, 운영 전문가 등 기반이 전무하다. 동국대와 위덕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 불교사학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순

수 사찰 평생교육원은 현재 조계사와 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 있어서 후발 주자인 불교계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대사회와 기업에서 낯이 '멘탈 생산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명상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의 양성도 종단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어지는 10년의 교육 시장은 타종교가 선점했다. 25세 이후 70세까지의 평생교육 시장마저 타종교에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사찰 평생교육원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학교폭력 근절 처방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사례로 첫 공식 인정됐다. 지난 3월부터 펼쳐 온 구미 도리사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 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전서 우수사례로 뽑힌 곳은 학교 30개교, 일반단체 10곳이며 종교단체에선 유일하게 구미 도리사가 선정됐다. 도리사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다는 데 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심리치료, 명상, 108배 등 다양한 불교 수행법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단순 프로그램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참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변화시킨 것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주효했다. 이 같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은 당장 큰 효과를 보였다.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현재 교육청과 각급 학교 연계 정기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인근 지역 학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템플스테이에 참가시키고 있다. 학교폭력 가담 학생 대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라는 외부 낙인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지마저 꺾어 놓는다. 이런점에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학생들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참 자아를 찾아내고 인내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며 치유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학교폭력예방의 큰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